

# 금호타이어, 733명 해고 통보

## 해고예고 706명에 27명 추가 ... 8월25일 20차 교섭결과 주목

금호타이어가 노조 73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는 8월25일 제20차 교섭을 앞둔 가운데 회사가 먼저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했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8월24일 “733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포함한 합의요청 통보서를 노조에 발송했다”고 밝히고, 노조에 8월25일 오전 10시에 교섭을 갖자고 요청했다.

정리해고자 명단에는 앞서 예고한 706명(명예퇴직자 포함)과 동점자 27명이 포함됐으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동점자 처리기준이 확정되면 기준에 따라 27명을 배제하게 된다.

노조는 명단을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고 밀봉해서 소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차 교섭에서 임금과 성과급 부문에서 크게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5>